

5/18(화) 다니엘 묵상 20

다니엘 4:34-37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려진 징벌의 기간이 끝나고 그의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기한이 차매

때가 차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 징계를 내리시기 이전에 하셨던 약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 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그의 생명 만은 거두어 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 뿐 아니라 그의 통치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왕 스스로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의 영혼을 회심케 하고 또 주되심(Lordship)을 인정하게 되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영광

자신의 총명을 되찾은 느부갓네살은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첫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이신 이, 영생하시는 이’라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34절하, “내가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으니”). 여기서 ‘지극히 높이신 이’라는 것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어휘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시는 이’는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과는 달리 영존하시는 초월자라는 뜻입니다. 둘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34절하,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권세’에 해당하는 단어는 복수로 ‘나라’로도 쓰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같은 고백은 그의 임기 초반에 그가 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아무리 강한 세상 나라들도 결국은 계속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하고 계속해서 강성해지기 때문입니다(단 2: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셋째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 누구의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과 완악함을 꺾으시고 느부갓네살에게 행하신 징계와 회복을 통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천하에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심을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의해 멸망(B.C 586년)을 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을 교만한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악한 느부갓네살의 통치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나타내 주심으로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 결국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의 불의와 억압으로 인해 세워진 왕국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이 느부갓네살(B.C. 605-562)의 뒤를 이은 아들 에월므로닥(B.C. 562-550)이 다스릴 때 그가 남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호야긴 왕을 친절히 대해 준 사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추정해보게 됩니다(왕하 25:27-30,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 칠 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십 이월 그 달 이십칠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 후 바벨론은 벨사살 왕(B.C. 550-539년) 때까지 이어지다가 그들은 메대에 의해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나라와 주권자들도 하나님 앞에 맞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 2. 중동 지역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두 나라 사이에 오랜 갈등이 해소되게 하소서.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구역을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햄튼 4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캄보디아 박훈용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